산업계, 협력사 '직접고용' 파장… 현장 중심 구조전환 물꼬

포스코, 협력사 7000명 직고용
불법파견 선고 앞두고 선제 대응
교육·행정비 등 부담 완화 관건

강남 포스코센터 외벽에 걸린 포스코 깃발. /포스코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장기화된 불법파견 소송 대응을 개별 소송 중심에서 현장 구조 전환으로 바꾼 첫 사례로 평가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생산현장에서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퇴사 후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편입이 아닌 신규 채용이다. 채용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퇴사와 채용 절차는 병행된다. 협력사 직원 대상 특별전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응 방식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이후 소송 당사자 55명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해 왔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200명 이상이 참여한 사건으로, 근로자 측 승소 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 이후 다른 제조업체들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제철은 순천·당진공장 관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 단계에 있고, 1213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형사 재판도 병행 중이다.

한국GM 등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GM은 지난 2022년 이후 거의 매년 발탁채용을 실시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나서왔으며, 그 규모는 13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 이후 약 9500명을 직접 고용했고, 동국제강은 2024년 협력사 직원 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포스코식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 기업은 직고용 전환보다 소송 대응 비용이 낮다고 보고 장기 대응을 택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경제성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채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채용 이후 발생할 인건비와 교육비, 행정비용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결까지 일정 부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적·경영상 상황이 달라 포스코와 직접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노무사는 "포스코는 출발 자체가 공기업으로 대내외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공정위, HDC 검찰 고발… "17년간 계열사 부당지원"

임대보증금 명목 무이자 자금 제공
과징금 171억 부과… "경쟁질서 왜곡"

HDC가 완전자본잠식 계열사에 17년간 임대차를 위장해 사실상 부당지원을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HDC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 운영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한다.

HDC는 아이파크몰의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3월경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HDC가 매장을 빌리면서 360억 원의 보증금을 냈지만, 정작 운영권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긴 것으로, HDC는 매장을 직접 사용할 의사 없이 자금만 공급하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장기간 333억원 ~ 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출수 있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HDC의 360억원 수혈이 없었다면 아이파크몰은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며 "부당한 지원 덕분에 생존한 아이파크몰이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유력 사업자가 된 것은 명백한 경쟁 질서 왜곡"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1면 '4년 균형론 정책…'서 계속

환율대응 등 변화 예고

이번 금통위는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보다, 지난 4년간 이 총재가 반복해 온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회의에 가깝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이 충돌할 때 그는 늘 금융안정과 신호관리의 비중을 높게 두는 쪽을 택했고, 이번 회의는 그런 '이창용식 균형론'의 최종 정리다.

◆ '유연' 내세운 신현송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출발점부터 관심을 끈다. 그는 프린스턴대 교수와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재직을 거쳤고, 2014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을 맡아 최근까지 통화경제국을 이끌었다. 글로벌 자본흐름과 금융안정 이슈에 강한 총재가 한은에 온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신 후보자의 첫 메시지도 분명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매파나 비둘기파로 단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 위기'를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고, 정부의 추경은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설계와 규모를 감안할 때 물가 자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송의 첫 언어가 '방향'보다 '유연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 시장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환율을 둘러싼 첫 톤은 적지 않은 해석을 낳았다. 원화가 2009년 이후 가장 약한 수준까지 밀린 상황에서도 그는 환율 레벨 자체보다 "유동성은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까지 환율 변동성을 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로 반복해서 언급해온 이창용식 언어와 비교하면, 같은 위험을 두고도 신 후보자의 표현은 한결 더 유연하게 들렸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총재가 물가·성장·금융안정을 함께 보는 균형론을 남겼다면, 신 후보자는 같은 복합위기를 더 유연한 톤과 국제금융의 언어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이번 4월 금통위는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 이창용 체제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남기고 떠나는지, 그리고 신현송 체제가 어떤 문제의식과 어법으로 그 우선순위를 이어받을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수출기업 위축… 제조업 체감경기 둔화

반도체·화장품 선방… 정유·석화 부진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우려가 겹치며 올해 2분기 제조업 체감경기는 소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제조기업 227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6으로 직전 분기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BSI는 100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기업의 2분기 BSI는 78로 전 분기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수출기업의 BSI는 70으로 20포인트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중동 사태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기업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화장품이 기준치 100을 웃돌며 비교적 양호한 전망을 유지했다. 반도체 업종의 2분기 BSI는 118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연속 긍정적 전망이 이어졌다. 화장품 업종은 전 분기보다 18포인트 하락한 103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며 개선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정유·석유화학과 철강은 부정적 전망이 이어졌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의 2분기 BSI는 56으로 전 분기보다 21포인트 하락해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원관희 기자 wkh@

2월 경상수지 232억佛… 월간기준 최대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수출 급증

지난 2월 경상수지가 231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수출 급증이 흑자를 밀어올린 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는 132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나타내 실물과 금융의 온도차도 드러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231억9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1월 132억6000만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흑자 확대를 이끈 것은 상품수지다. 2월 상품수지는 233억6000만달러 흑자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수출은 70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9.9% 늘었고, 상품수입은 470억달러로 4.0%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1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월 38억달러 적자보다는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가 지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12억6000만달러로 축소됐고, 기타사업서비스수지도 연구개발 및 관계기업 간 사업서비스 지급 감소 영향으로 6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4억8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228억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6억4000만달러 늘어난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19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는 132억7000만달러 순유출을 나타내 역대 최대 순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社告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 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